

03 고교 과목 별

수리논술은 누가 쓰는 시험인가

내신 대비 논술의 손익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숫자부터	2
02 무엇이 다른가	3
03 누가 쓰는가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자연 577줄·5,554명 대 인문 438줄 — **경쟁률은 자연이 더 낮습니다(31:1 대 45:1)**
- ◆ 내신·수능 수학과 수리논술이 다른 다섯 가지 — **과정에 점수가 있다는 것의 뜻**
- ◆ 「완벽히 풀 수 있어야 쓴다」는 생각이 틀린 까닭 · 백지가 잘 안 나오는 시험
- ◆ 내 자리인지 가르는 세 가지 · 기출을 한 번 써 보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

01 · 숫자부터

자연계 논술이 더 많습니다

「논술은 글 잘 쓰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?」

절반만 맞습니다. 자연계 논술은 글이 아니라 수학입니다. 풀이 과정을 글로 적는 수학 시험이라고 보시는 편이 가깝습니다. 그리고 자리 수로 보면 인문 논술보다 많습니다.

2027학년도 논술 1,033줄을 계열로 나눠 보았습니다.

계열	줄	모집 인원	경쟁률 중앙
자연	577	5,554명	31.2:1
인문	438	3,288명	45:1

자연계 자리가 더 많고, 경쟁률은 더 낮습니다. 인문 논술 45:1 에 견주어 자연은 31.2:1 입니다.

까닭이 있습니다. 수리논술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. 인문 논술은 글을 쓸 줄 알면 일단 써 보는 학생이 많은데, 수리논술은 풀 수 없으면 백지가 됩니다. 그래서 지원자 스스로가 걸러집니다.

이것이 수리논술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. 「해 볼까」로 접근하는 시험이 아니라 「되는지 확인하고 쓰는」 시험입니다. 뒤에서 그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논술 전형 1,033줄(32개 대학)을 저희가 집계.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입니다.

02 · 무엇이 다른가

내신 시험과 수리논술

같은 수학이지만 묻는 방식이 다릅니다.

	내신·수능 수학	수리논술
답	숫자 하나	풀이 전체
채점	맞다·틀리다	과정에 점수가 있습니다
시간	한 문제 2~3분	한 문제 20~30분
문항 수	20~30문항	서너 문항
필요한 것	빠른 판단	끝까지 밀고 가는 힘

「과정에 점수가 있다」가 무슨 뜻인가

답이 틀려도 중간까지 맞으면 그만큼 받습니다. 거꾸로 답이 맞아도 과정을 못 적으면 깎입니다.

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가 있습니다. 수리논술은 백지가 잘 안 나옵니다. 끝까지 못 풀어도 손댄 만큼은 점수가 됩니다. 그래서 「완벽히 풀 수 있어야 쓴다」는 생각은 틀렸습니다.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가 실제 잣대입니다.

그래서 이런 학생에게 맞습니다

한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을 견디는 학생입니다. 20분 동안 한 문제를 보고 있어야 하는데, 3분 만에 답이 안 보이면 넘기는 습관이 든 학생에게는 이 시험이 몹시 괴롭습니다.

반대로 내신 수학에서 시간이 모자라 손해를 보던 학생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. 느리지만 깊게 가는 학생이 이 시험에서 제 값을 받습니다.

출처: 각 대학 2027학년도 논술 안내 및 기출. 문항 수·시간은 대학마다 다릅니다.

03 · 누가 쓰는가

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

수리논술이 내 자리인지는 세 가지로 가릅니다.

Q. 하나 — 기출을 한 번 써 보았는가

이것이 **유일하게 확실한 방법**입니다. 성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. 내신 2등급인데 안 맞는 학생이 있고, 4등급인데 잘 맞는 학생이 있습니다.

목표 대학 기출을 시간을 재고 한 번 써 보십시오. 기출은 대학 홈페이지에 **해설과 함께** 공개되어 있습니다. **돈이 들지 않습니다.**

보실 것은 「맞았는가」가 아닙니다. 「**끝까지 붙들고 있었는가**」입니다.

Q. 둘 — 수능최저를 넘길 수 있는가

논술의 73%가 수능최저를 겁니다. 논술을 아무리 잘 봐도 최저를 못 넘기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.

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. **최저를 먼저 세어 보고, 그다음에 논술을 준비하십시오.** 거꾸로 하면 **논술 준비에 쓴 시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.**

거꾸로 보면 이건 기회이기도 합니다. 최저에서 걸러지는 지원자가 많아서 **실질 경쟁률은 표면보다 크게 낮습니다.**

Q. 셋 — 고사일에 갈 수 있는가

논술은 **직접 가서 치릅니다.** 그런데 고사일이 며칠에 몰려 있습니다. **쓰고 싶은 곳 둘이 같은 날이면 하나는 버립니다.**

그러니 **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달력부터 펴 보십시오.** 갈 수 있는 날이 둘뿐인데 세 곳을 준비하는 것은 **시간을 버리는 일**입니다.

셋이 다 「예」면 수리논술은 **좋은 자리**입니다. 하나라도 「아니오」면 **그 시간을 다른 곳에 쓰시는 편이** 낮습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.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준비하는 차례와 점검표

수리논술 준비는 순서를 지키면 시간이 훨씬 적게 듭니다.

차례	무엇을	언제
1	최저를 세어 봅니다	가장 먼저
2	기출을 한 번 써 봅니다	그다음
3	달력에 고사일을 찍습니다	원서 전
4	대학을 둘셋으로 좁힙니다	준비 시작 전
5	그 대학 기출만 반복합니다	준비 기간 내내

5번이 핵심입니다. 수리논술은 대학마다 출제 색이 뚜렷하게 다릅니다. 여러 대학 문제를 조금씩 보는 것보다 **한두 대학 기출을 여러 해치** 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. **범위와 방식이 반복되기** 때문입니다.

그리고 **답만 맞히고 넘어가지 마십시오.** 과정에 점수가 있는 시험이니 「어떻게 적었는가」를 **봐야** 합니다. 대학이 공개한 **예시 답안**과 자기 답안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입니다.

수리논술을 준비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목표 자리의 **수능최저** 를 세어 보았는가
- ☐ 그 최저를 **넘길 수 있는가**
- ☐ 기출을 **시간을 재고** 한 번 써 보았는가
- ☐ 한 문제를 **20분 붙들고** 있을 수 있었는가
- ☐ **고사일** 을 달력에 찍었는가
- ☐ 겹치는 날이 **없는가**
- ☐ 준비할 대학을 **둘셋으로** 좁혔는가
- ☐ 대학이 공개한 **예시 답안** 을 보았는가

네 번째가 가장 정확한 잣대입니다. 못 푸는 것은 배우면 되지만, 못 견디는 것은 바꾸기 어렵습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수리논술반에 등록하기 전에 **기출을 먼저 써 보십시오.** 논술 수업은 길고 비싸서 학원이 권할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런데 **안 맞는 학생에게는 그 시간이 통째로 손해**입니다. 기출은 대학 홈페이지에 **해설과 예시 답안까지** 공개되어 있습니다. **한 번 써 보시는 데 드는 돈은 없고, 그 한 번이 몇 달을 정합니다.**

05 · 자주 묻는 것

수리논술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내신이 안 좋아도 정말 되나요?

내신 반영 비중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. 요강에 「논술100」이라 적힌 자리가 476줄입니다 — 내신을 아예 안 보는 자리입니다.

실제로 2026학년도 논술 전형의 학생부 70%컷 중앙값은 **4.17등급**이었습니다. 교과 2.76등급, 학종 3.22등급과 견주면 내신이 낮은 학생이 실제로 합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

다만 「내신이 안 좋으니 논술」은 위험한 순서입니다. 논술은 내신 대신 **논술 실력과 수능최저**를 봅니다. 둘 다 없으면 내신보다 더 좁은 문입니다. 「내신이 약하다」가 아니라 「논술이 맞다」가 이유여야 합니다.

Q.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?

고3 여름이면 대개 늦지 않습니다.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.

수리논술은 수학 I·II, 미적분 같은 교과 내용 위에서 출제됩니다.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으면 논술 준비가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그건 논술 준비가 아닙니다.

그래서 기준은 시기가 아니라 상태입니다. 해당 범위의 교과 내용이 되어 있으면 여름부터 두세 달로 충분하고, 안 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하니 시간이 훨씬 더 듭니다.

그리고 수능 공부와 겹치는 부분이 큼니다. 논술 준비가 수능에 도움이 되고 반대도 그렇습니다. **완전히 따로 쓰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**은 부담을 덜어 드릴 만합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수리논술은 내신이 약한 학생의 도피처가 아니라 오래 붙드는 학생의 자리입니다. 맞는지는 기출 한 번이면 알 수 있습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공개 전형결과를 집계한 것입니다. 개별 대학·학과의 합격선과 경쟁률은 심지 않습니다. 문항 수·시간·출제 범위는 대학마다 다르니 요강과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